

추석 명절 가정예배

기 원 인 도 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가족들이 한가위 명절에 한자리에 모여 영광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십자가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송 가 310장 다 갈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봇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 도 가족 중에서 성 경 봉 독 히브리서 11장 13-16절 자녀 중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말 씀 추석명절에 기억할 일 인 도 자

추석 명절을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가위’란 ‘즐겁다’라는 뜻이고, ‘한’이란 ‘가장 큰’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가위란 ‘가장 크고 즐거운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추석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소서’라는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된 명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감사입니다. 예로부터 추석이 되면 햇과일과 햇곡식을 조상신에게 드리고 음식은 나누며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식 추수감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에 조상신이나 우상에게 제사하지 않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추석 명절에 진정으로 감사할 대상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고향입니다. 추석은 고향을 찾아가는 명절입니다. 민족의 대 이동이 이루 어지는 날입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명절에 우리는 육체의 고향이 있듯이 영혼의 고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찾았던 고향은 육신적인 고향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고향은 찾아 갈 때는 기대를 가지고 가지만 실망을 안고 돌아 올 때가 많습니다. 또 이 세상의 고향은 잠시 머물다가 오기는 좋아도 오래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 갈 영원한 본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절기가 바로 추석입니다.

셋째, 조상입니다. 조상들을 신으로 받들며 제사를 드리는 일은 잘못 되었어도 우리의 뿌리인 조상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교훈과 가훈들을 생각하는 것은 뜻 깊은 일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는 육신의 조상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합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으며,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그 밖의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조상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자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살기로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기도 다 같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소망
가운데 행복한 가족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추석명절에 함께 모여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믿음의 확신을 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비하신 주님의 거처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우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송 가 384장 다 같 이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2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 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2

주기도문 다 같 이

2025년



가정예배

